

제7회 유일한상 수상한 을유문화사 정진숙 회장

# 출판으로 민족 문화의 밑거름이 되다



**지난** 1월 15일, 출판계 큰 어른인 을유문화사 정진숙 회장이 유한재단이 수여하는 '유일한상'을 수상했다. '사회의 사표가 인사의 공로와 업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제정'된 유일한상은 그 동안 최태섭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명예회장, 강영훈 세종재단 이사장, 오웅진 꽃동네 회장, 현승중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유한재단은 "정진숙 회장님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고(故) 유일한 박사의 삶과도 많이 공통되는 바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정진숙 회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더 이상 고사하면 죄를 짓는 일인 것 같아 수락했다"는 짧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60년 세월의 무게만도 무겁지만 세상에 내놓은 책의 무게와 깊이는 출판계의 유·무형의 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 회장님은 거칠고 굴곡 많은 출판 현대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창립이 해방이 되던 해 12월이니, 을유문화사의 출판 역사는 벌써 61년을 훌쩍 넘어섰다. 결길로 한눈팔지 않으며 달려온 을유문화사의 61년 세월은 그야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족문화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우리 출판 역사의 밑거름이 된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심에 바로 정진숙 회장이 있다.

은행원이던 정진숙 회장을 출판의 길로 이끈 이는 집안 어른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었다. "지금 건준이다 임정이다 해서 난리인데 저건 가짜 애국이야.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우리 역사 문화 말 글 등을 다시 살려야 해. 출판사업을 하는 것도 건국사업이야." 정 회장은 "민족 문화의 밑거름"이라는 위당의 말에 출판의 길을 두말 않고 선택했다. 그렇게 60여 년 동안 한국 역사와 한글, 그리고 한국 사회문화 분야의 양서 7,000여 종의 책을 선보였다.

그 중 정 회장이 가장 애착을 보이는 책은 잘 알려진 대로 《조선말큰사전》과 《한국사》이다. 식민지 시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압수되었던 원고가 한운송회사 창고에서 발견되었지만, 마분지도 없어 신문도 못 찍던 시절에 사전을 언감생심 꿈에 꿰 보았을까. 그러나 정 회장의 독심을 여기서 빛이 났다. 10년 넘게 걸려 기어이 《조선말큰사전》을 만들어내고야 만 것이다. 1965년

진단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통사인 《한국사》를 만든 것도 그에겐 마음 속 자량이 되었다.

정진숙 회장은 출판계 전체를 위한 일에도 항상 발 벗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니며 한국 출판의 세계화에 앞장 선 것이 바로 정 회장이다.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현승중 박사는 "지금이야 한국학의 해외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면서 "한국학의 해외 전파의 시초를 놓은 것이 정 회장님"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출판금고(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오랜 시간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술한 출판계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도 했다. <출판저널>의 창간 역시 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책이 없는 백만장자가 되느니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가 낫다"는 좌우명으로 평생 출판 외길을 걸어온 정진숙 회장. 정 회장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책 한 권에 일희일비하는, 베스트셀러 조급증에 빠진 출판인들에게, 오랜 세월 지속하며 문화적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때로는 넉넉한 인심의 할아버지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때로는 죽비처럼 매서운 호통으로 출판인들의 걸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글서체**

취재 정동석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